

새어나가는 부가가치세를 막기 위한 몇 가지 점검사항

상담실 백종훈 차장

많은 사람들은 특별한 절세의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지만, 세금을 줄이기 위한 특별한 방법은 없다. 신고와 관련된 세법을 잘 숙지하여 신고시에 누락시키거나 간과하지 않고 신고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의외로 기본적인 사항을 잘 몰라 줄일 수 있는 세금을 더 내는 경우도 많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데 있어서 큰 노력을 기울이는 대신에 약간의 주의를 기울이는 것만으로 세액이 새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새나가는 세금을 막기 위한 몇 가지 방법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신고시 전기요금영수증 등 세금계산서 겸용서식도 포함해야

사업자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포함된 계산서(영수증)를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경우 그 계산서를 세금계산서 대신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계산서는 세금계산서로 인정(국세청장에게 신고한 서식임을 기재하여야 함)된다.

일반적으로 전기요금영수증 등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는데, 많은 사업자들이 전기요금영수증 등이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를 잘 몰라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전기요금 등 사업과 관련한 공공요금은 대부분 세금계산서 겸용서식(영수증)으로 납부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제출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에 따른 발행세액공제 적용받기

소매업, 음식·숙박업 등 주로 소비자와 거래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경우 연간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발행금액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음에도 이를 잘 몰라 발행세액 공제신고를 하지 않아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시에 잊지 말고 반드시 발행세액 공제를 받아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

소득공제용으로 받은 현금영수증을 지출증비용으로 전환하여 신고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가 별도 구분된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많은 사업자가 지출증비용 현금영수증이 아닌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기재되지 않은 소득 공제용 현금영수증을 교부받고 있는데,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은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하여는 국세청 현금영수증사이트의 현금영수증 용도변경에서 지출증비용으로 전환이 가능하므로 전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아야 한다.

휴업기간에 지출한 사업장 유지·관리를 위한 매입세액도 공제가능

대부분의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업기간에 발생한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사업자가 휴업기간 중 사업장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일반적인 관리업무에 대한 비용을 지출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서면3팀-2893, 06.11.22)

따라서 휴업 중에 교부받은 사업관련 세금계산서가 있다면 반드시 신고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아 세부담을 줄여야겠다.

납부의무면제자인지를 확인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납부의무면제자)의 경우 납부의무가 면제되므로, 납부할 세액이 계산되더라도 신고만 하고 납부는 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전에 납부의무면제자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여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세액을 납부하는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납부의무면제자는 당해 과세기간 신규, 휴·폐업자인 경우에는 6월로 환산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확정신고시 예정고지세액 또는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을 반드시 신고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 및 예정신고시의 일반환급세액은 확정신고시 납부(환급)세액에서 공제되는데, 이를 신고누락하여 과다하게 납부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고지세액·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을 사전에 확인하여 과다납부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를 하면 예정고지세액 및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이 자동으로 기재되므로 별도의 확인작업이 없어도 된다.